

‘종교인 생명평화 100일 도보 순례단’이 한강과 남한강, 낙동강을 포함한 한반도순례 예정지의 ‘생명의 강’을 모시기 위해 2월 12일 김포의 애기봉전망대에서 출발하여 부산 낙동강 을속도까지 50일간의 여정을 무사히 끝냈다.

출발한 첫째 날은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천막 잠을 자며, 한 마리 앵벌레처럼 침낭 속으로 몸을 밀어 넣어보지만 혹한의 강바람은 잠을 설치기에 충분한 만큼 혹독했다. 침낭 옆 배낭 속의 페트병 물마저 얼어버릴 정도였다. 생명의 강을 모시기 이전에 내 몸 하나 제대로 추스르는 것도 쉽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사치였다고 느끼며, 내일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좀 더 따뜻하길 기다려 보지만 막바지 겨울의 첫날밤은 참으로 길기만 했다.

순례단 단장인 이필환 목사는 몸살과 독감으로 강북길에서 쓰러진 뒤 깨어나자마자 엉덩이 울었고, 새만금 삼보일배로 망가진 양 무릎을 3번이나 수술하여 지팡이를 짚고 걷는 수경 스님은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어느 성당의 성모마리아상 앞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잘 버티던 박남준 시인도 물금나무터에 들어오자마자 몸살감기로 잠시 입원을 해야 하는 등 우리 순례단 모두는 폐수가 흐르는 강물처럼 허위허위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



불자 세상보기

지관 스님
김포 문화사 주지

강은 생명 · 행복의 근원

그동안 우리 순례단은 평일에는 50여명, 주말에는 수백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생명줄인 강변길을 걸어서 왔다. 그동안 약 1만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구간 구간마다 도보순례에 동참하며 위기에 처한 우리 강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참회와 성찰의 기도를 하며 ‘한반도순례 구상’이라는 ‘유령’의 실체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왔다.

과연 우리에게 강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한반도순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넘어서, 운하 개발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인간과 강 즉,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의 논리를 넘어서 우리들 세대만이 아닌, 면면히 이어갈 우리의 후손세대까지도 배려하자는 것이다. 우리들에게서 강은 생명줄, 그 자체인 것이다. 강은 그냥 강이 아니었다! 강은 매일 똑같으리라 생각

각하며 강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부운하 예정지의 1500리 강변을 따라 걸다가 살아 숨 쉬는 듯한 깨끗한 강물을 만날 때는 피로에 지친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곤 했다. 골재 채취 등으로 강줄기의 내장이 파헤쳐지거나, 각종 폐수 소각터로 죽어가는 강물과 마주칠 때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그만큼의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

강은 산과 더불어 있고, 산은 강과 함께 있기 금수강산이라 말하지 않았던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옛 속담처럼 ‘수단(한반도순례)과 방법(살생과 파괴)을 가리지 않고, 목적(단기간의 경제부양을 위한 것이라면 상관없다)’라는 인식 속에서는, 불교의 근본가르침인 연기(인과)법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생명평화의 행복은 먼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은 50일의 여정을 걸을 것이다. 호남운하와 충청운하의 예정지인 목포 영산강을 출발하여 금강 충주를 거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의 생명줄인 강을 살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간절한 소망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흘러가는 강물의 속도에 맞추어 걸으며, 생명의 강과 하나가 될 것이다.



모범 보이는 ‘청불회’ 되어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뿌리치고 마음의 공덕을 쌓으려 애쓰기 바란다.”

4월 3일 조계사에서 첫 법회를 봉행한 이명박정부의 청와대불자회 회원들에게 내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주문이다. 청와대불자회는 조직의 특성상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체제로 실행 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정부의 불자회는 비교적 빨리 구성되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첫 법회를 봉행한 것이다. 법회에서 청불회 김병국 회장은 “몸들이 마음을 닦고 자신을 바로 보면서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청불회는 실행단체다. 그들이 일하는 곳이 국가 주요기관이라고 해서 그들이 결성한 불자회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실행단체일 뿐이다. 오히려 그들의 신분에 걸맞게 보다 간절한 국가관과 애민의를 바탕으로 불자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실행활동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변양근씨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청불회장이라는 순수한 자리가 자신의 업무와 연관될 때 승가와 결부된 민망한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불자들은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김병국 회장의 취임사에 더 많은 관심이 갔다. 김 회장은 자리이타의 보살도를 청불회의 존재 목표로 설정했다. 청불회는 순수한 실행단체로서 주요기관에 종사자하는 불자들의 모임으로서 불교계는 물론 사회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관리’ 하라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종교 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와 그 이전의 선거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던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지난 연말의 대선에 비해 사례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에 대한 부당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와 관련 불교계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낸 바 있고 국가인권위도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재고를 권유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짧은 시간 안에 종교시설에 대체할 만한 시설을 선정하는 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종교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인들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기관이 자칫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시설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투표소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종교시설에는 위험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선교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면,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투표 이외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마음 바꾸기 작전

4월은 대학의 중간고사와 리포트를 제출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시험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고정관념은 “시험은 부담이다. 싫다”일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 때 과다한 공부와 경쟁을 거쳐 온 학생들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마음의 입력을 바꾸어보기로 했다.

우선 장애우도 있고 병원에 환자들도 있는데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고 했다. 실제로 한 학생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간호를 해드려야 해서 학교에 못나오고 있다. 그런 큰 일없이 시험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마음 바꾸기 작전에 대해 한 학생이 이메일을 보내왔다.

“시험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 지구촌 시대에 살면서 제가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 주는 글이 있어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께다 가요코라는 사람이 구성한 내용을 약간 수정해 보았습니다.” 학생의 글 중 일부를 소개한다.

지구 안의 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⑤8 시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만약 세상이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오늘 하루가 설레었나요? 오늘밤, 눈을 감으며 당신은 괜찮은 하루였다고 느낄 것 같나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그 어디보다도 소중한다고 생각되나요?

선뜻 “네, 물론이죠”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이 메일을 선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주변이 조금 달라져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계는 63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의 마을사람들 중에서, 20명이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자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모두 미국사람입니다. 또 74명

이 39%를 차지하고 겨우 2%를 나머지 20명이 나눠가졌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가운데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20%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한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자가용이 있으면 7명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지구 마을 사람 가운데 1명은 대학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공승이나 폭력, 지뢰로 인한 살육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

는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았습니다.

이 메일을 읽는다면, 그 순간 당신의 행복은 두 배 세 배로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을 생각해서 이 메일을 보내 준 누군가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은 맹인이 아니어서 글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에 풀어놓은 사랑은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러나 사랑할 때는 마음껏 사랑하세요. 실령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 해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당신이 먼저 사랑하세요. 이 지구 마을에 살고 있는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을.

진정으로 나와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다면 정말로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비열한 힘으로부터 이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반드시.

행복한 기회로 만드세요

청년들은 잠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다. 시험 스트레스에 약하게 지 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처하기를 희망해 본다. 나아가 시험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자신의 실력을 쌓고 점검할 수 있는 행복한 기회로 만든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부족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실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경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각해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필름